

한국적 도시건축 만들기

우리나라 도시건축의 무국적 저질화 현상을 개탄하며

글_김홍식 건축가·명지대 교수

흔히 우리나라 도시건축에는 국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유럽에 가면 비좁게만 느껴지지만 프랑스, 독일, 영국, 각기 다른 맛을 풍기며 독특한 나름의 인상을 준다.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참히 깨져버린 도시 환경을 20세기 초기 모습으로 복원했다. 오히려 당시 좀 예쁘지 못한 건물들은 제거되고 그 이전, 이후의 아름다운 환경으로 재복구되었으며 개중에 교회처럼 원형 복원이 어려운 건축은 아직도 여전히 벽돌을 맞춰보면서 연구 중에 있기도 하다.

반면 미국은—1950년대 이후 지어진 현대식 건물을 제외하고—많은 부분 건축문화에 변두리 싸구려 냄새가 배어 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좋은 말로,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질문화의 관념적 포장일 뿐 삼류문화는 삼류일 뿐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을 따라잡기 위한 경제 일변도의 정책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는 더더욱 후진국형 변두리 거지문화 환경의 퀴퀴한 냄새가 진동한다. 상가는 '하꼬방' 처럼 군더더기가 많고 울긋불긋 싸구려 아크릴 간판이 난무하여 어느 나라 도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무국적 저질 걸레 환경이 연출된다.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서구의 선교사들조차 거리에는 똥이 난무하는 풍경이라고 악평하면서

도, 조용한 아침의 나라—은둔의 선비들이 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궁궐이라고 칭찬하던 것은 격세지감이 있다. 당시의 경제적 여건은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천박함은 없었다.

민족적 자부심의 결여

어느 지역,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이지만 한 지역사회가 훌륭한 건축을 창조하는 것은 다만 그들의 경제력만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국민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지니고 있을 때에만 당당한 민족적 조형언어가 탄생한다. 멀리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잉카 제국의 여러 조형물, 동남아시아의 특이한 조형언어—이웃 일본의 신사는 물론이고 근대적 건축물들, 역사가 깊은 인도나 중국의 조형물, 기타 서구 열강의 근세적 건축물 등은 그들 민족적 자부심의 열매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의 최근세사는 치욕적인 일본의 식민 지배, 민족 해방조차 자신의 힘으로 이룩하지 못하고 외국 의 힘에 의해 주어졌으며 현재 역시 미군의 주둔 아래 겨우 북한과 군사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앗아갔고 먹고 사는

것을 최대의 목표이자 생의 당연한 것으로 강제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선비적 자존심까지도 팔아먹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족적 정신세계를 형상화하는 도시건축 환경은 피폐되었고 거지처럼 자부심까지 버린 '하꼬방' 도시 환경이 형성된 것이다. 무조건적 값싼 건축의 추구가 목표가 되어 집시 같은 거지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에선 재벌들의 건물이 외제로 포장하여 그 위용을 자랑하고 민중을 압살한다. 삼류적 전근대와 현대적 공간의 이중구조가 이루어지는 신식민지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단절과 탐구열 빈곤

식민지 시기가 단순히 우리에게 가혹한 경제적 핍박만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중요한 근대화 시기에 우리의 자주권까지를 빼앗아버린 사실이 중요하다. 해방 후 여전히 미군정하에서 미국의 주구인 이승만 정권까지가 민족 자주적 사고를 버리고, 막연히 서구화에 대한 동경으로 미국 문화 수입 일변도에 흘렀고 전용 문화를 말살하고자 했다.

우리의 것은 미신이고 하루빨리 지워버리지 않으면 후진국의 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고 믿었다. 너도나도 미국행을 하고 건축기술을 습득해서 우리나라에 이식하고자 했다. 전통적 건축술을 익힌다는 것은 아련한 낭만일 뿐 현대건축에 아무런 공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건축 환경을 구성하는 제1차 요소로서 도시계획에서조차 일제 이후의 도시사는 연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이전의 민족적인 도시계획사—더구나 마을계획사는 공부한 사람이 전무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산천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을 전통적 계획론을 모르고 있으니 도시 국토계획이 봉사 문고리 잡기식이다. 근래에는 백두대간이니 뽀니 하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도시계획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인지했던 국토에 대한 개념을 무시한 채이다. 도시설계자는 대지를 강간하듯 난도질하고 커다란 굴삭기로 아무런 반성 없이 산을 옹기고 바다를 막는다. 우리 선조들이 집 하나를 앉힐 때 얼마나 조심했던가는 비단 풍수지리책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다.

전통적 길이 측량기술의 미숙으로 구불구불한 것이 아니며, 예전의 절집과 석탑들이 아무렇게나 앉혔기 때문에 약간씩 비뚤어져 배치된 것이 아니다. 요즘 도시정비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서 삼각자 하나로 짝짝 그어버리고 만다. 그 칼날 아래 죽어가는 우리의 역사적 문화 환경, 전통적 민족 정서가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은 무시된다.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유구한 역사적 선조들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현대 인간은 물질적으로 과거 사람보다 우월할는지 모르나, 삶의 지혜까지가 월등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오랫동안 이 국토에 살면서 깨달은 의식은 대단히 귀중하다.

그러나 미국 일변도의 사고는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을 게으르게 했다. 값싼 자본주의적 행동이 의식 없는 서구 기술의 수입에만 급급했을 따름으로, 전통적 민족 정신에 대한 탐구열은 말살되었다. 자신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적 정신병—착오를 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민족(테크니산) 지도층의 철학 부재

잘살아 보는 것만이 국가의 지상 목표이고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미뤘으니, 우리의 지도층 가운데 아름다운 생활 환경의 창조에 대한 철학적 사고를 생각이라도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해방 후 미국의 신식민주의적 통치방식에 따라 친일파가 오히려 득세하던 시절에 문명에 대한 비평이나 지성에 대한 반성

우리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소국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 식의 도시건축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도시계획 내지 마을계획 방법론부터 생태적 건축기술까지를 습득해서 현대적 하이테크 기술을 접목한다면 세계화 시대의 생존전략이 될 것이다.

이 있을 수는 없었다.

이후 반군부 반독재 투쟁의 정치 일변도적 상황 아래에선 테크니산의 지적 비평은 당연히 배제되어 왔다. 겨우 문학에서나 혹은 가끔은 미술 쪽에서 평론이 있어 왔지만 서로 추켜세우기이거나 아니면 현란한 수사어구의 나열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의 삶을 외면하는 도시건축 환경이 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성찰 없이 하나의 상품을 기계에서 찍어내듯 내뿜어졌다. 우리의 민주적이고 시민적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 도시건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식은 언감생심이다. 정치적 지도층은 전문 분야라는 변명을 하면서 도외시하고 우리 건축인들은 오히려 그들 정치 지도층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다. 언제 우리 기술자가 지성인으로서 한번 자신의 의지로 걸어본 적이 있는가?

한국적 생태 건축계획론을 계승하자

전통적 건축계획론은 우리의 산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우리의 자연에 가장 알맞은 이론이다. 국토이용 계획, 도시계획 혹은 마을계획에서, 비록 그것이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경험적 철학과 방법론을 익혀왔다. 이것이 비기능적일

는지 몰라도 — 서구에서조차도 현재는 탈피하고 있는 — 미국식 지역지구제를 베낄 필요는 없다. 그들은 값싼 에너지가 넘치는 사회이고 바다나 산이 별로 없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자연생태에 가장 적합한 건축계획론을 익히고 이론화해 왔는바, 이것을 계승 발전시킨다면 우리 식 우리 산하, 자연에 알맞은 도시계획론이 될 것이다.

또한 건축은 — 그 규모나 기능, 재료를 비교해 보더라도 — 전통건축이 현대사회에 아무런 공헌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최근 서구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생태건축 쪽은 우리의 방식이 좋은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산채를 이용한 비빔밥이 세계적 건강식품이듯 황토방, 초가집 구들, 한지 창호가 세계적인 생태건축으로 자리매김할 때도 멀지 않은 듯하다.

한국적 조형언어에 대한 교육, 홍보매체의 균형감각

한국적 조형언어의 개발이 우리 건축가에게는 중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한옥에 대한 과목이 전무한 데서 유래하기도 한다. 대학교과과정에 겨우 한국건축사 한 과목이 설강될 뿐이고 오히려 서양건축사보다 비중이 약하다. 더구나 이것은 한옥에 대한 체험이 아니고 교양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정도이다. 한옥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직

접 지어보지는 못할망정 도면을 스케치해 보거나, 직접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가 언제 우리 건축에 대한 도면을 그려보도록 교육했는가?

우리나라 건축이 세계 일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도시건축이 독특한 한국적 경관,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는데, 전통적 한옥의 계승 창조와 전통적 조형요소를 응용한 현대건축 같은 한국적 조형언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루는 잡지에서 현대적, 하이텍 건축과 함께 이에 관해 동등한 지면을 할애해야 한다. 더구나 민족적 조형언어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금은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소개해 주어야 한다. 근자에 들어 일부 건축 잡지에서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원체 한국적 조형언어로 설계하는 사람이 빈약하여 지면을 주지 못하는 듯하다. 학교 교육이나 잡지 홍보에 있어 전통적 건축에 대한 시간을 많이 배당해야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이런 생각이 우리 건축가들의 맘에 깃들여 있어야 하겠다.

세계화 시대의 생존전략

21세기 세계화 시기에 있어 건축적 담론은 하이테크 건축, 친환경 기술, 보편성을 확보한 민족적·지역적 건축으로 압축되는 듯하다. 우리의 전통적 목조건축은 비록 기능적으로 현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친환경적이라는 보편성과 새로운 기술로서 하이테크가 접목된다면 21세기를 선도할 조형론으로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제기되는 과제가 21세기 나무+철 건축 시대의 도래이다.

가장 지역적·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는 말이 있듯, 우리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소국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 식의 도시건축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도시계획 내지 마을계획 방법론부터 생태적 건축기술까지를 습득해서 현대적 하이테크 기술을 접목한다면 세계화 시대의 생존전략이 될 것이다. 한국적 도시건축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세대의 과제가 되는 이유이다. ✨